

#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의결안건 제226호 관련)

2021. 12. 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1일(수) 14:00~18:2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26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회계공시업무의 책임자로서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 주식 미기재 관련 위반행위를 초래한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를 드림. 다만, 본 주식 미기재는 저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인한 기재 누락이지,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림. 검찰통보 조치만큼은 제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주)○○○에서 ☆☆☆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생산 설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제조부문의 설비하고 자산만 양수도가 일어남. 인력은 다 퇴사를 하고 신규로 입사한 형태가 되었음.

- (위원) 인력을 새롭게 모집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인력 이동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금감원 이야기에 의하면 동일한 사람이 퇴사하고 그대로 ☆☆☆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진술인) 저희 (주)○○○이 리니어 스테이지 사업부문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하고 ☆☆☆으로 입사한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임. 고용승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음. 일부는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으로 간 것이고 나머지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에 입사를 하게 된 것임.

○ (위원) (주)○○○의 지분을 BW를 통해서 50% 가지고 계시고 동생분이 40%를 가지고 있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의 공동지배력 관련된 문제인데 동생과의 (주)○○○ 공동지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의사를 형성해서 (주)○○○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바는 없음.

○ (위원) 그러면 BW에 대한 인수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셨는지?

▶ (진술인) 2012년 가을경에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으로 인수하였음.

○ (위원) 그런데 (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

☆으로 리니어 스테이지 모듈에 대한 생산과정을 양도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의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10분의 1로 감소했고 영업손실로 바뀌었는데 (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제가 아직 워런트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주주라고 생각한 적은 없음. 그리고 제가 BW를 인수하게 된 배경도 경제적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없었음.

○ (위원) 회계기준상 특수관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질의임. 지금 금감원에서는 ○○○씨의 (주)△△△, ○○○·○○○씨의 (주)○○○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이외에 (주)△△△과 (주)○○○ 사이의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근거가 K-IFRS 제1028호 문단 6 ‘(3)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교류’ 이 두 건으로 인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진술인) K-IFRS 제1028호 문단 6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의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됨. 그리고 문단 1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의적인 규모의 거래를 통해 단지 경제적 의존 관계만 있는 고객, 공급자’ 이런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유의적인 중요한 거래를 통해서 상호 영업이나 재무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어야 유의적인 영향

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주)△△△ 매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상호 간에 재무 정책과 영업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양사의 유의적 영향력을 정의하기에는 명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보고자) 저희는 실질지배 여부를 떠나서라도 (주)△△△과 (주)○○○ 간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맞지만 일단 본 건 감리 지적은 회사가 고의로 은폐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것임. 그리고 양사 간 특수관계 여부는 ○○○과 두 아들이 (주)△△△과 (주)○○○에 대한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 위반이고, 이를 은폐하고 ‘의 비정상거래에 해당되니까 위법동기도 저희가 고의로 판단한 것임.

▶ (진술인) 저희는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해서 깊이 다투어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회계기준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을 회계사도 아닌 중소기업 회계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 ○○○ 이사님이 2012년, 2013년 당시에 (주)○○○과 (주)△△△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미 하셨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한 적

이 없고, 그냥 (주)○○○이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인 것이고, 또 ○○○과 ○○○가 (주)○○○의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사채권자로서의 입장으로만 검토를 했던 것임. 제가 안일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위원) 2012년 이전에는 리니어 스테이지 원재료의 공급은 어디에서 충당하셨는지?

▶ (진술인) ▲▲▲라는 회사에서 공급받았음.

-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급받은 금액의 수준이 대략 얼마였는지?

▶ (진술인) 연간 30~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의 이익률이 (주)○○○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음.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리니어 스테이지라는 매우 중요한 거래선이 바뀌면서 거래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주)○○○과의 지분관계, 그것도 자녀분이,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한 번도 상의를 안 했느냐는 것임. 실질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의’, 주석 미기재라는 제재 안전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 사안을 숨겼기 때문에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임.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기

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특수관계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주)△△△이라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임. 이것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저희 증선위에서 판단하겠음. 그다음에 검찰고발만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대리인 진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채만을 이유로 '고의'로 조치한 감리지적사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바람.

▶ (진술인) 저희가 그동안 한 5년치 정도의 조치사례를 봤는데 그동안 찾아봤던 내용들 중에서 주식 미기채만 가지고 '고의'로 조치한 사례는 사실 10건이 안 되는 것 같음.

- (보고자)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채만으로 '고의'로 지정한 사례는 2021년도 최근에 '나'모 회사가 있고 2020년도에는 'S'모 회사가 있음.

○ (참여자) (주)○○○과의 거래가 크고 중요한 부분이고, 특수관계자 여부는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함.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등 전문가 집단과 왜 협의조차 않았느냐, 이것이 금감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의'의 주요 근거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따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주)○○○ 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음. 두 자제분께서 (주)○○○ BW를 매입하는 그 순간 BW를 행사할 만큼 경영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계시니, 그러면 (주)



○○○ 입장에서 생각하는 대주주는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음. BW를 행사하면 지분이 90% 되어 버리는데 두 분을 신경 쓴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의 출처가 그 부친이시니까 ○○○ 대표를 신경 써가면서 경영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음. (주)○○○은 독자적인 회사이고 ○○○, ○○○, ○○○ 이 세 분에게 경영활동을 지시받은 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